

최근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하락 원인 분석

요 약

- 최근 경기도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 전산업 취업자 증가가 부진
 - '26년 1/4분기 경기도 취업자 증가는 1만3천명(0.2%)에 불과, 전국 18만3천명(0.6%)보다 크게 부진
 - 그 원인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2만4천명 감소(Δ 0.8%)로 부진한 데 있음. 반면 전국은 24만9천명(2.2%) 증가
 - 지난 '25년 4/4분기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율은 0.5%로 저조, 반면 전국은 3.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창출
 -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전산업 취업자 증가 347만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증가가 281만명(81%)이며, 그 중 보건·복지업 증가가 161만명(46%)
 - 경기도는 보건·복지업, 특히 보건업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하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부진('25년 하반기 경기도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율은 6.9%(전국 9.3%), 보건업 증가율은 Δ 1.6%(전국 7.4%))
-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는 2021~23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2024~25년은 정체(지역별고용조사)
 -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와 급격한 정체는 지역별고용조사의 표본오차에도 일부 기인하였지만, 전국사업체조사로 확인하더라도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의 2020년대 증가와 최근의 증가 둔화는 공통적으로 확인됨
 -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 증가가 급격하게 둔화된 원인은 보건업 중에서 병원업의 취업자가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에 급증한 이후 증가폭이 급격히 축소되었기 때문
 - 보건·복지업 중 사회복지업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도별 취업자 증가폭에 큰 차이는 없었음
 - 사회복지업 종사자수는 지난 10년간 2.4배라는 놀라운 폭으로 증가, 특히 방문 복지서비스가 크게 증가
- 요약하면, 최근 경기도 보건·복지업 종사자 증가율이 하락한 원인은 보건업, 특히 병원업 취업자가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초의 경기도의 높은 경제성장기에 급속하게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크게 하락한 때문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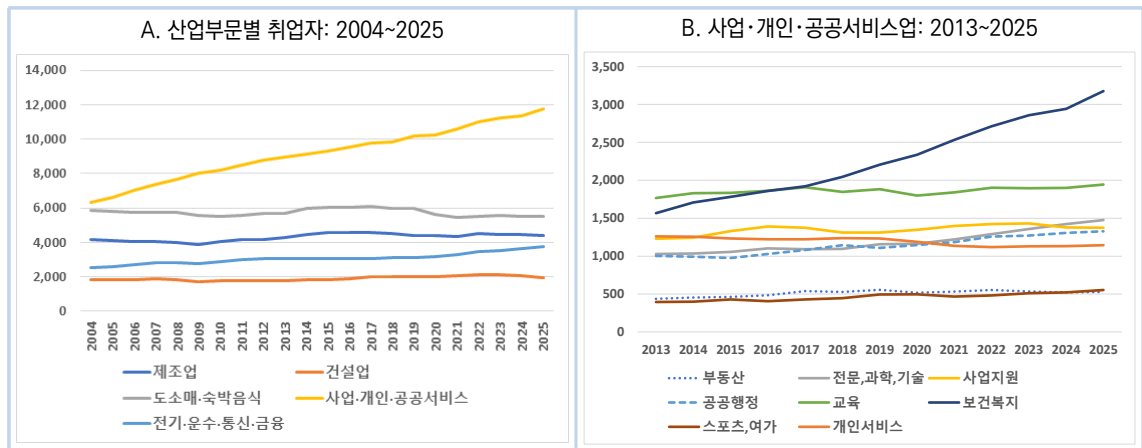
최근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가 부진

최근 경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하여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A)
 - 제조업과 건설업은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 전기·운수·통신·금융은 전문직과 자본투자가 많은 산업으로 증가세이나 일자리 대량 창출에는 한계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역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크게 감소한 이후, 소매업은 판매방식의 변화로,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자 선호 변화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취업자 증가는 거의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그림 1A)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중에서도 보건·복지업에서 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후 설명(그림 1B)

그림 1 산업별 취업자수: 2004~2025

(단위: 천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저자 계산

- 최근 경기도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이 전산업 취업자 증가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26년1/4분기 전산업 취업자 증가는 전국 18만3천명(0.6%)인 반면 경기도는 1만3천명(0.2%)에 불과하여 저조한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의 격차가 주원인
 -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는 '26년1분기에 2만4천명 감소(△0.8%), 반면, 전국은 24만9천명 증가(2.2%)

표 1 시도별 산업별 취업자 증가: 2026년 1/4분기

(단위: 전년비, 천 명)

산업	전국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남
전산업	183	13	25	10	15	38
제조업	-27	-54	15	-21	24	23
건설업	-26	36	-17	-20	-3	9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	22	26	3	-17	0
전기·운수·통신·금융	76	53	-62	17	44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49	-24	62	31	-38	38

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나('26년1/4분기),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내에는 다양한 산업이 있으므로 보다 세부 산업별 추이를 알아보고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을 진단

표 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 2025.1/4~2026.1/4

(단위: 전년비, %)

시도	2025.1/4	2025.2/4	2025.3/4	2025.4/4	2026.1/4
전국	3.1	4.0	4.1	3.1	2.2
서울특별시	3.7	4.0	4.6	2.3	2.8
부산광역시	4.3	6.0	4.0	6.6	4.4
대구광역시	1.8	-0.8	2.7	5.9	5.9
인천광역시	5.3	4.5	1.2	-3.4	-5.6
경기도	3.4	4.3	2.7	0.5	-0.8
경상남도	3.5	5.2	77.3	10.9	6.2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저자 계산

2

최근 경기도의 저조한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

보건·복지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일자리 창출도 활발한 산업으로 최근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보건·복지업이나,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업 일자리 창출이 부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사업지원, 공공행정, 보건·복지, 개인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그 중 보건·복지업은 가장 비중이 클뿐만 아니라 최근 일자리 창출도 가장 활발한 산업임
 - '26.1/4분기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는 24만9천명, 보건·복지업의 증가는 25만5천명으로서 사실상 해당산업 부문의 모든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함
 - '26.1/4분기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에서 일어나고 있음(표 3)
 - 이전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일자리 증가 중 보건·복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는 않았으나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의 일자리 창출 부진에 따라 '26.1/4에는 거의 모든 일자리 증가는 보건·복지에서 창출
 - 앞의 [그림 1B]에서 취업자 증가 산업은 교육,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정도이나 그 어느 산업도 보건·복지업의 성장 세와는 비교되지 않으며 보건복지 취업자는 2013~25년간 160만명에서 320만명으로 약 2배 증가
 - 전산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일어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중에서는 보건·복지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므로 결국 보건·복지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셈
 - 201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전산업 취업자 347.0만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증가가 280.9만명, 그중 보건·복지업 증가가 161.1만명(그림 1B)
 - 과거에는 스포츠 및 여가, 혹은 개인서비스와 같은 소비 관련 서비스업이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와 같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
- ※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는 매월 발표되는 속보성 통계인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내에서 각 (대분류) 산업별 통계는 전국 통계만 발표되며 각 시도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체 통계만 발표됨
- ※ 시도별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 통계는 「지역별고용조사」(반기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현재 '25년 하반기 통계까지 이용가능), 보다 자세한 세부산업별 종사자수는 「전국산업체조사」(연간)에서만 확인 가능 (현재 2024년 통계까지 이용가능).

표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내 각 산업별 취업자 증가 (전국): 25.1/4~26.1/4

(단위: 전년대, 천 명)

산 업	2025.1/4	2025.2/4	2025.3/4	2025.4/4	2026.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체	346	458	469	353	249
수도, 하수, 폐기물	9	10	4	3	-13
부동산	-6	-2	33	8	33
전문, 과학, 기술	72	111	50	-19	-8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43	-15	-6	42	35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52	34	1	-1	-49
교육 서비스	43	70	47	14	37
보건, 사회복지	175	222	290	261	255
예술, 스포츠, 여가	14	6	40	62	53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	24	23	13	-1	0

주: 취업자 수가 작은 가구내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는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보건·복지업은 전형적인 지역적 서비스(local services) 산업으로 소비자는 거주지역에서 생산된 서비스만을 소비하며, 반대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거주지 지역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보건·복지업은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성장한다는 특징을 가짐

-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는 보건업(86)과 사회복지업(87)이 있는데, 보건업에는 의원, 병원, 공중보건의료, 기타보건업이 있고, 사회복지업은 거주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타)와 비거주 복지시설(보육, 기타)로 구성됨
- 위 열거된 서비스 산업에서는 소비자는 거주지에서 생산된 서비스만 소비하므로 보건·복지는 성격상 지역적 서비스
 - ※ 지역적 서비스(local services)란 비교역재 서비스(non-tradable service)라고도 하는데 소비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서비스)만을 소비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생산된 서비스를 교역으로 구매할 수는 없다는 특성을 가짐
- 정리하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①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산업이며, ② 지역적으로는 성장하는 주거지 지역에 입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시도별 보건·복지업과 보건, 사회복지 각 산업의 최근 추이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2025년 하반기 통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인천과 더불어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율이 낮으며 특히 보건업 증가율이 매우 낮음

- 2025년 하반기 보건업 취업자 증가율은 경기도가 △1.6% (전년대), 인천은 1.6%로 매우 낮음(전국 평균은 7.4%)
- 반면 경기도의 사회복지업 취업자 증가율은 13.6%로 높은 편 (전국 평균 10.4%)
 - 인천은 사회복지업 취업자 증가율도 낮아 보건·복지 증가율이 특히 부진한 원인으로 작용
- 결과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 보건·복지 취업자 증가율이 6.9%와 3.1%로 낮은 이유는 저조한 보건업 성장이 주원인
- 경기도와 인천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이 타 시도 대비 매우 낮는데 보건·복지업의 저조한 성장이 주된 원인이며 보건·복지업 증가율 부진은 보건업의 낮은 취업자 증가율이 주원인

표 4 시도별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2025년 하반기

(단위: 전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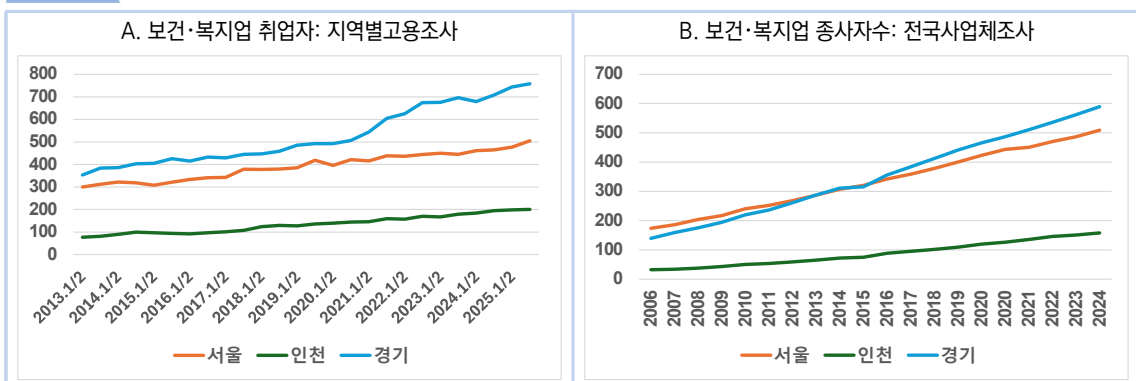
산업	전국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보건 복지	9.3	8.6	10.0	3.1	6.9	15.3
보건	7.4	12.5	9.4	1.6	-1.6	18.0
사회복지	10.4	4.6	9.6	3.0	13.6	1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2	2.8	4.2	-1.0	0.3	9.6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최근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는 전년비 감소세(Δ 1.6%)인 반면 사회복지 취업자는 매우 높은 (13.6%) 바와 같은 극심한 변동은 통계적 오차의 결과일수도 있으므로 다른 통계자료로 재확인할 필요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별 변화의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지역별, 각 산업별의 세부 통계에는 상당히 큰 통계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지역별통계조사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통계조사로는 전국사업체조사가 있는데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전수조사이므로 표본 오차는 거의 없는 대신 시차가 길어 현재 2024년 통계까지 발표됨
 - 지역별고용조사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므로 조사결과는 취업자로 집계되며,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종업원수를 조사한 결과이므로 '종사자'로 집계됨
 - 지역별고용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의 보건·복지업 취업자(종사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은데 (i) 경기도 보건복지업 취업자는 지난 20년간 서울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ii) 2023년 이후 증가율 하락은 두 조사자료에서 공통적이지만, (iii)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종사자수 증가율 하락이 지역별고용조사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게 나타남(그림 2A 및 그림 2B)
 - 경기도 보건복지업 취업자(종사자) 증가율(전년비):
 - (전국사업체조사) '23년 4.8%, '24년 5.0%
 - (지역별고용조사) '23.상반기 8.0%, 하반기 3.4%, '24.상반 0.5% 하반기 1.7%, '25.상반 9.6% 하반기 6.9%
 - 그러므로, 지역별고용조사는 취업자수의 시간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세부 통계에는 통계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인 추세를 보아야 함

그림 2 보건·복지업 취업자 통계 비교: 지역별고용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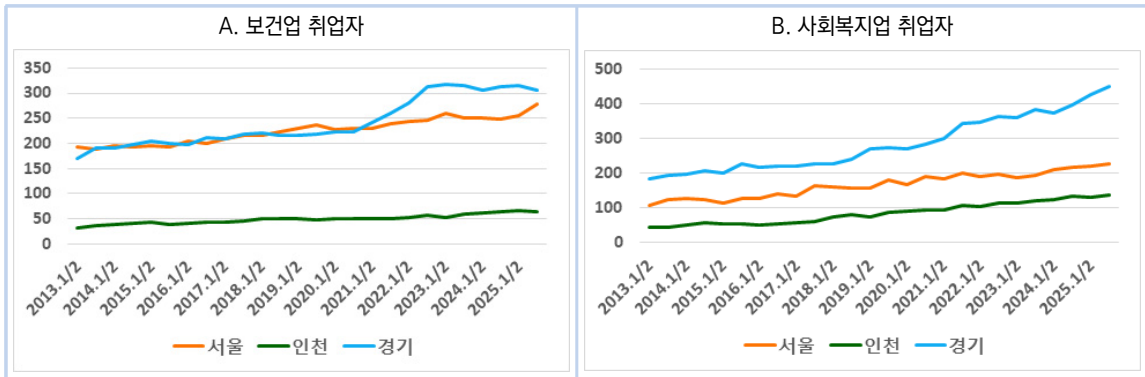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는 2021~23년에 급속하게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멈추었으며,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최근 증가세가 오히려 확대된 양상 (그림 3)

-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는 2021~23년의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4~25년에는 증가세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경기도와 같은 급증 시기는 없었던 반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천 보건업은 경기와 유사하게 2021~24년 급증 이후 2025년에는 정체.
 - ※ 인구총조사 인구(2024)는 서울 934만명, 경기 1,391만명이나 보건업 취업자수는 비슷하므로 그만큼 경기도는 보건업 밀집도가 서울보다는 낮은 것임. (인천은 306만명으로 서울 인구의 1/3이나 보건업은 64만명으로 1/4)
- 보건업은 지역에 수요가 존재하여야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서비스업이므로 보건업의 성장은 지역의 인구와 소득 증가의 결과인 경우가 많음
- 보건업에서 서울과 경기 취업자 규모가 비슷한 것과 달리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경기가 45만명으로 서울 23만명의 약 2배이며 경기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2024~25년에 크게 증가하여 서울이나 인천보다 빠르게 증가

그림 3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취업자수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상반기~2025년 하반기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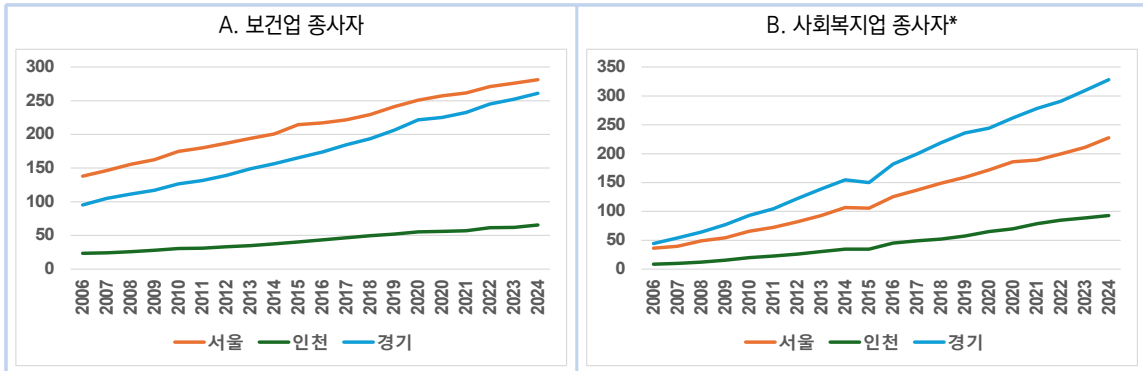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지역별고용조사에 나타난 경기도 보건업 취업자의 급속한 증가 이후 정체를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면, 경기도 보건업의 성장은 병원업의 성장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보건업(산업종분류 86)은 세부적으로 병원, 의원, 공중보건료, 기타보건업으로 구성되는데 세부 산업별 종사자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국사업체조사에서만 확인가능
-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종사자수 추이를 확인해보면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은 지역별고용조사에 나타난 추이와 유사하지만 보건업의 급격한 증가와 정체는 관찰되지 않음(그림 4)
-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경기도 보건업 종사자수 증가율은 오히려 2017~2020년에 약 7%로 매우 높았으며, 2023~24년간은 약 3%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국이나 서울보다는 높은 수준
- 경기도 사회복지업 종사자 증가율 역시 2023~24년에는 약 6%로 전국 평균이나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그림 4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종사자수(전국사업체조사): 2006~2024

(단위: 천 명)



주: *2015년의 감소는 10차와 11차 산업분류 적용에 따른 시계열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결과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보건업 종사자는 대부분 병원업 혹은 의원업이므로 병원과 의원으로 나누어 경기도의 보건업 종사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병원업 종사자수는 2010년대 후반에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의원업 종사자수는 증가율에 큰 변화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병원업은 의원보다 고급 의료서비스이며 의원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역적 서비스업의 성격이 강한데에 비하여 병원은 타지역의 환자도 이용하므로 타지역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교역재 서비스업의 성격도 가짐
- 그러므로, 의원 서비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와 소득 등 지역에 수요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반면 병원은 인접한 타지역의 수요에 의하여 성장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 수요에 대한 의존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 우리나라의 추이를 보면 의료 수요의 고급화를 반영하여 병원업은 특히 2010년대 후반에 의원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의 병원업은 2010년대 전국 추이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다가 2020년대에 들어 성장세가 둔화
- 반면, 의원에서는 각 지역에서 성장세의 큰 차이는 없음

그림 5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종사자수(전국사업체조사): 2006~2024

(단위: 천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이상의 추이를 종합하면, 경기도 보건업의 2021~23년간에 걸친 급속한 성장과 2023~25년의 급격한 성장 정체는 통계조사상의 표본 오차에 일부 기인하여 변화폭이 실제보다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도 보건업이 2010년대 후반에 빠르게 성장하였고 2020년대에 들어 크게 둔화된 현상 자체는 다른 통계에 의하더라도 뒷받침되는 사실임

- 요약하면, 최근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자 증가 둔화는 보건·복지업, 특히 보건업(병원 및 의원)의 취업자

증가 둔화에 대부분 기인하며,

- 보건업(특히 병원업)의 성장은 산업 특성상 해당 지역의 소득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데, 경기도는 2010년대에 경제성장이 타 시도에 비하여 높아 보건업이 2010년대와 2020년대 초반에 크게 성장하였으므로
- 최근에는 보건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보건·복지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 둔화로 나타나고 있음

3 경기도 사회복지업 취업자 증가

사회복지업 종사자수는 지난 10년간 약 2.2배라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되므로 시도별 종사자수 증가속도는 비슷하며, 거주 보다 비거주 복지 시설, 특히 방문 복지서비스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

- (전국사업체조사) 보건업 종사자수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인천에 이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시도인 반면, 사회복지업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음(그림 6)

- 보건복지업은 보건업(중분류 86)과 사회복지업(87)으로 구성되며, 보건업은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으로 구성되고 사회복지업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됨

※ 중분류 이하 세부 산업별 통계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2024년까지의 통계만 이용가능

- 경기도 보건업은 지난 10년간 인천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와 수도권의 빠른 성장을 반영
 -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인천과 더불어 보건업 종사자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며 특히 2010년대에 급속 성장

보건업 종사자수 증가 (%)	경기	서울	인천	전국
2015~2020년	34%	17%	36%	23%
2020~2024년	16%	9%	17%	11%
2015~2024년	58%	31%	62%	39%

- 사회복지업은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특별히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음

- 경기도는 2010년대 중 타 시도로부터 전입이 많았으며 고령인구 증가는 타 시도보다 오히려 느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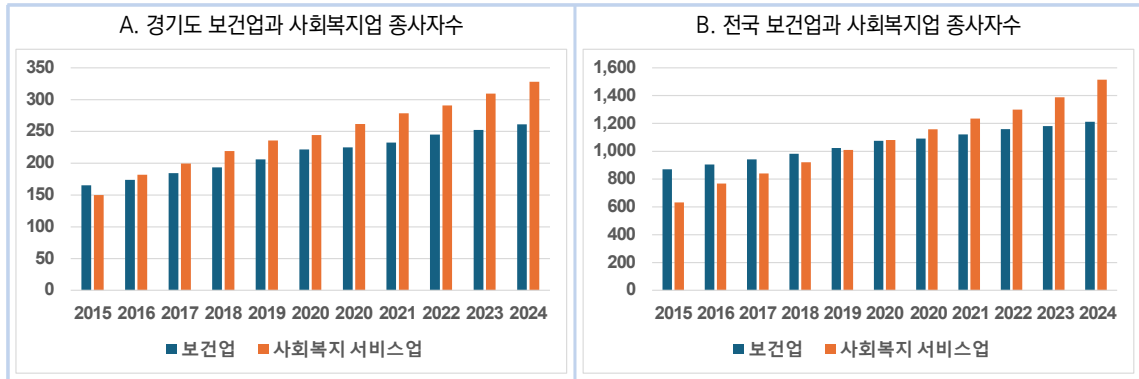
사회복지업 종사자수 증가 (%)	경기	서울	인천	전국
2015~2020년	63%	63%	88%	71%
2020~2024년	25%	22%	33%	31%
2015~2024년	119%	122%	169%	139%

- 종합하면, 보건·복지업 전체로는 경기도의 종사자수 증가는 전국과 비슷하며 조금 더 빠른 편임

보건·복지업 종사자수 증가 (%)	경기	서울	인천	전국
2015~2020년	48%	32%	60%	43%
2020~2024년	21%	15%	26%	21%
2015~2024년	87%	59%	111%	81%

그림 6 경기 및 전국 보건업과 사회복지업 종사자: 2015~2024

(단위: 천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 사회복지업 종사자수는 지난 10년간 그 어느 산업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24년간 2.4배가 되었는데,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15만명에서 33만명으로 2.2배로 증가하여 비슷한 폭으로 증가
 - 사회복지업 종사자는 2015~24년간 서울 2.2배, 인천 2.7배, 경기 2.2배 등으로 비슷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24년간만 보더라도 서울 1.2배, 경기 및 인천 1.3배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폭으로 크게 증가
 - 사회복지 종사자수는 복지 정책 확대와 인구구조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가 예측되었지만, 예상을 능가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산업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시행되므로 지역별 차이는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요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음
 - 시도별 사회복지업 종사자수 증가를 비교하면 시도간 격차는 2015~20년간에 컸으며 2020~24년에는 시도간 격차가 크게 축소됨. 2020~24년에는 광주, 부산, 충북, 경북에서 증가율이 높고 수도권인 서울 경기가 낮음 (그림 7A)

표 5 시도별 사회복지업 종사자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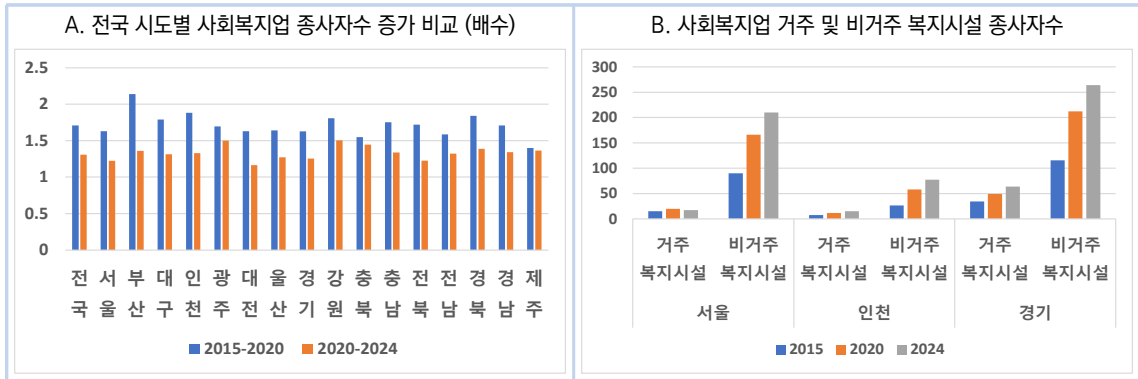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분	년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종사자수	2015	632	105	34	150
	2020	1,158	186	70	262
	2024	1,514	228	93	328
증가배수	2015-2020	1.7	1.6	1.9	1.6
	2020-2024	1.3	1.2	1.3	1.3
	2015-2024	2.4	2.2	2.7	2.2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7 경기 및 전국 사회복지업 종사자 증가 비교: 2015~2024

(단위: 천 명)



자료: 국가데이터터, 「전국사업체조사」

■ 사회복지업에는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증가는 대부분 모두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일어남(그림 7B)

- 거주 복지시설은 노인 거주(요양 및 망로) 복지시설,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기타(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등인데 전국적으로 2015년 14.4만명에서 2020년 17.6만명(1.3배), 2024년 20.7만명(1.2배)으로 증가 (2015~ 2024년간 1.7배 증가)

• 각 시도의 각 기간별 증가 양상도 비슷함(그림 7B)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거주시설보다 훨씬 더 많으며 내용도 다양하여 2024년 전국 종사자수는 거주 시설 서비스가 21만명, 비거주 시설 서비스가 131만명으로 비거주시설이 대부분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31만명)에는 보육시설(29만명)과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102만명)이 있는데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는 ①직업재활원(18만명), ②종합복지관(13만명), ③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56만명), ④사회복지상담서비스제공업(12만명), ⑤그외 기타 복지서비스(12만명)*으로 구성되어 ‘방문 복지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⑤ 그외 기타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노인·유아 지원 봉사단체, 경로당·노인정, 사회복지관, 재난구호시설, 무료급식소, 입양알선기관 등

• 2020~24년간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1.3배 증가하였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는 0.9배로 소폭 감소하고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1.5배 증가하였으며, 각 항목별 증가율에 큰 차이는 없음. 종사자 증가폭은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이 가장 크며 2020년 35만4천명에서 2024년 55만8천명으로 증가

- 2024년 경기도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총 26.4만명인데 보육시설 운영업 8.6만명, ①직업재활원 1.3만명, ②종합복지관 2.0만명, ③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11.1만명, ④사회복지상담서비스 8천명, ⑤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 2.0만명 등으로 구성

• 서울은 비거주 복지시설 21.0만명 중 보육시설 4.7만명, ①직업재활원 2.1만명, ②종합복지관 1.9만명, ③방문복지서비스 9.3만명, ④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7천명, ⑤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 2.4만명 등임

• 인천은 비거주 복지시설 7.8만명 중 보육시설 1.6만명, ①직업재활원 1.6만명, ②종합복지관 3천명, ③방문복지서비스 3.3만명, ④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2천명, ⑤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 6천명 등임